

변화 革新 분위기 날개 달다

포천교육청 혁신 표어 공모 결과 발표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교육혁신 활동의 접화와 변화 혁신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혁신 표어 및 혁신관련 바탕화면·화면보호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표어 및 바탕화면·화면보호기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학교혁신을 촉진하고 교육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혁신 표어부문 85건, 바탕화면 47건, 화면보호기 14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창의성, 효과성, 가치함축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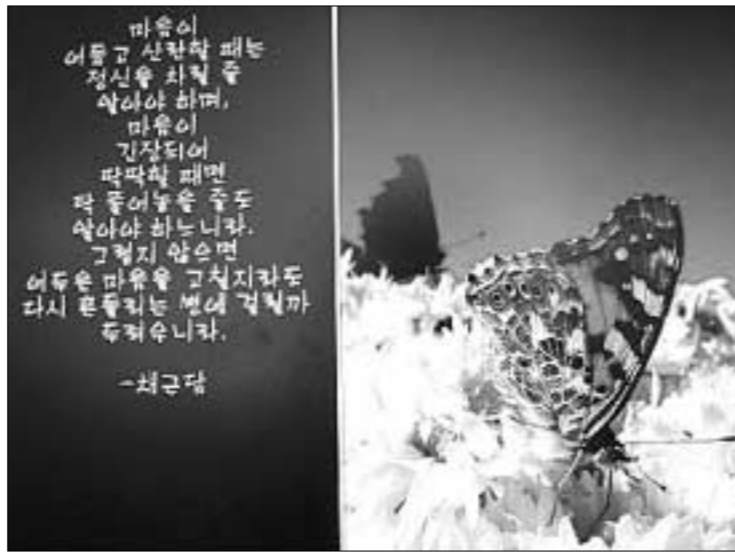
심사결과 혁신 표어부문에서 외북초 송수인 교사의 '작은 변화로 오늘을 바꾸고 작은 실천으로 내일을 열자'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컴퓨터 바탕화면부문 중리초 기능9급 박영

숙, 화면보호기 부문 외북초 장은숙 교사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천교육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당선된 표어는 각급학교에 인쇄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전자문서 공문서 상·하단의 문구 게시 및 청내 홍보물 제작 게시 등으로 적극 활용중이다.

또한 혁신관련 바탕화면 및 화면보호기 우수작은 우리교육청 및 각급학교 전 직원의 컴퓨터에 배부·설치해 업무중에도 틈틈이 변화 혁신관련 메시지를 접하며 개인의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포천교육가족의 혁신참여 기회 확대와 혁신 공감대 확대로 혁신 추진동력 확보의 계



경기도포천교육청은 교육혁신 활동의 접화와 변화 혁신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혁신 표어 및 혁신관련 바탕화면·화면보호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컴퓨터 바탕화면부문 중리초 기능9급 박영숙의 작품)

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생활밀착형 도서관 탄생

포천시, 작은도서관 2곳 내년1월 조성

포천시가 내년 1월까지 선단동 주민자치센터와 신북면 복지회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독서공간은 물론 지식정보서비스와 독

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포천시는 선단동 주민자치센터에 45평, 신북면 복지회관에 40평 규모로 각각 '작은도서관'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총 소요예산 2억원 가운데 작은도서관 한 곳에 5천만원씩 모

두 1억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는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은 경기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종합검토를 통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고 이번에 포천시 2곳과 파주시 1곳 등 모두 3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통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연구와 자료개발 서비스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경기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9월 15일 개통식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경기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9월 15일 개통식을 가졌다.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진로교육의 연구와 자료 개발 및 지원으로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하고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교육청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시연회를 가졌다. 경기진로정보센터의 인터넷 주소는 jinro.kerinet.re.kr이다. 센터소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 학부모 방 등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고, 진학정보, 사이버상담, 진로뉴스, 진로자료, 각종검사, 직업사전, 자격증 소개 등 교육수요자와 함께 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경기진로정보센터장인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김주일 원장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진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기진로정보센터가 널리 활용되어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으로 경기진로정보센터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된 새롭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이버 상담과 차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선생님에게는 신바람 나는 경기교육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송우초·영중초·일동중·포천여중 우승

제31회 교육장배 포천학생육상대회 결과

제31회 교육장배 포천학생육상대회가 9월13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초·중·고 학생 1천3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교육공무원의 즐거운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과 건강한 인성함양,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80m, 100m, 200m, 400m, 800m, 1,500m, 멀리뛰기,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400m 계주 등 트랙 및 필드 등 총 10종목에 걸쳐 초등1부, 2부, 중등으로 나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초등1부에서 송우초등학교, 초등2부에서는 영중초등학교, 중등부 남자부에서는 일동중학교, 중등부

여자부에서는 포천여자중학교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학교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즐거운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과 건강한 인성함양,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겸비한 경기력 향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1부 우승 송우초, 준우승 일동초, 3위 영북초 ▶초등2부 우승 영중초, 준우승 유암초, 3위 관인초 ▶중등부(남) 우승 일동중, 준우승 포천중, 3위 영북중 ▶중등부(여) 우승 포천여중, 준우승 갈월중, 3위 영북중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31회 교육장배 포천학생육상대회가 9월13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초·중·고 학생 1천3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은 경기도 포천교육청 임용동 학부과장이 중등부(여) 우승팀 포천여중에 표창하고 있다.)

'공부·인맥관리 풍요로운 삶 기대'

대진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입학 및 개강식

2006학년도 후기 대진대학교 최고경영자(CEO)과정 입학 및 개강식이 9월13일 오후7시 대진대학교 교수회관 2층에서 제12기 22명과 신현구 총동문회장 등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강식에서 정재화 대진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유난히도 더운 여름을 보내고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진취적인 기상으로 입학

하신 CEO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현구 대진대학교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장은 "제12기 입학하신 마음으로 축하하며 골프회와 산악회 등에도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학 및 개강식을 가진 대진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7시 특강 형식으로 1년간 30강의로 진행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6학년도 후기 대진대학교 최고경영자(CEO)과정 입학 및 개강식이 9월13일 오후7시 대진대학교 교수회관 2층에서 제12기 22명과 신현구 총동문회장 등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외북초등학교 공동 급식소 준공 기념식

외북초·창수초·삼정초·삼성중 공동급식소

외북초등학교와 창수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와 삼성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공동급식소 준공 기념식이 9월12일 12시 외북초등학교 공동급식소에서 개최됐다.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청장과 환영할 포천시 부시장, 이진구 외북초등학교장과 관내 초·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준공 기념식은 테이프 커팅과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공동급식소

는 그동안 신북초등학교가 조리 중심학교가 되어 5개교 공동급식을 실시했으나 신북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로 자체급식학교로 분리되고 외북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4개교 공동급식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공동급식소 신설사업을 전개하게 됐다.

외북초등학교 급식소는 포천시교육청 예산 1억5천만원과 포천시 예산 1억5천만원 등 모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케이 건설사와의 공사 계약을 체결해 2006년4월부터 8월



외북초등학교와 창수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와 삼성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공동급식소 준공 기념식이 9월12일 12시 외북초등학교 공동급식소에서 개최됐다.

까지 공사를 통해 급식소 50평, 창 15평 규모로 완공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49가지'를 읽고



내가 이책을 구입한 것은 학교 도서관에서 접한 책의 제목이

눈에 띄어서였다.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책속에 숨어있는 감동을 보고 싶기 위함도 있었다.

지난번에도 읽고 두 번째 읽게 되어도 이 책의 감동은 내가 마치 글자 하나하나에 빨려들어가듯 순식간에 스물다섯번째 할 일을 찾아 읽게 되었다.

첫 번째부터 내가 할 일들은 많았지만 부모님 날 닮아드리기 와 자신의 능력 믿기, 남을 돕는 즐거움 찾기 등 일상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속에서는 꺼려하는 일들이 많았다. 시간만 투자하면 살아있는



김인수 학생명예기자 (동남중 2년)

동안 꼭 해야 할 일들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될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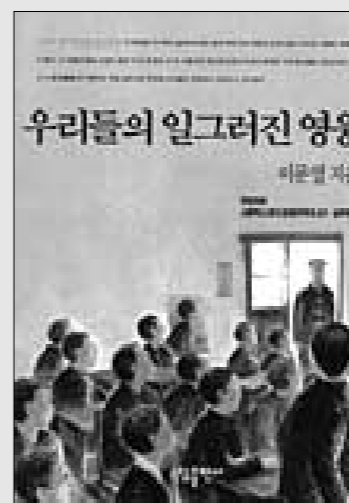
그런 자그마한 일이 나부터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한심스러웠다.

책을 읽으면서 그만 읽어왔다고 생각은 해도 다음 페이지의 멋진 감동을 맛보고 싶어 순식간에 다 읽어버리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지은이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나의 모습과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저자 탄취임, 역자 김명은,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이 책에는 두 분의 선생님이 등장한다. 두 분의 성격은 완전히 대비된다. 나는 두 선생님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 책은 한 시골학교에서 일어나는 지배층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시골학교로 전학을 온 한병태는 처음부터 학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무실은 담배연기가 자욱하다. 이 글에서부터 시골학교 선생님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신성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

할 선생님들께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나서 한병태가 교실로 들어가 쉬는 시간이 되는 순간부터 엄석대와 한병태의 오묘한 기 싸움은 시작된다.

엄석대는 그만의 반장이었다. 엄석대는 자신의 힘으로 반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 일은 아마도 예전부터 계속된 일인 것 같다. 이것도 선생님께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결국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관심하다는 증거이다.

이 선생님은 한병태가 몇 번이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엄석대의 지배에 따른 반아이들의 억울한 비밀은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새학기가 6학년이 되고 선생님이 바뀐 후 상황은 역전된다. 6학년 새학기 반장을 선출하던 날 어김없이 엄석대의 지배가 드러나고 있다. 1표 정도를 빼고는 처음부터 학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무실은 담배연기가 자욱하다. 이 글에서부터 시골학교 선생님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신성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



이서연 학생명예기자 (추신초 6년)

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런식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문제점의 원인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엄석대를 앞에 두고 때리기 시작했다. 매를 맞고 약해진 석대를 보자 아이들은 실망하고 석대의 비밀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한다. 이날 이후 엄석대의 지배는 끝나고 말았다.

5학년때 선생님이 6학년때 선생님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아무래도 현대적이고 지혜로운 선생님은 6학년때의 선생님이 것 같다. 6학년 선생님의 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정의감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전율이 느껴진다.

6학년 선생님은 대중 농여진 상황에 맞춰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세심한 관찰과 증거를 찾아 잘못된 점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겠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윤중성의 미국어파라하기



6. '존'이 매우 피곤해 보이는데... John looks very tired. 존룩스베어뤼타이얼 * 집에 가게 하게 좋겠어. We'd better let him go hom. 우이드베러렛힘고우홈

It looks letting up soon. 이룩스레링업수운 9. 신분증 좀 봅시다. Let me see your ID(Identification). 랫미씨어 유어이디 *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히어이리쓰

10. (소평) : 이것 3개 주십시오. Let me have this, three, Please. 랫미해브디쓰, 쓰뤼, 플라이쓰 * (다른 것) 더 필요하신거 있으세요? Do you need something else? 두유닛셈싱엘스?